

설 가정예배 순서

2026년 2월 17일(화)

인도_가족 중에서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시편 119:105 인도자

말씀 “주의 말씀은” 인도자

기도 인도자

찬송 559장 다같이

주님의기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성경 시편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알림

1. 설교문은 뒷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본문을 쓴 시편 기자는, 어느 날 어두운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문득 찾아온 정전과도 같았습니다. 익숙했던 집이 정전되고 어둠이 차오르면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우리는 두 손을 더듬거리며 다니게 됩니다. 밝을 때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문지방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기에 마음까지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어두운 집을 한참 헤매다가 초를 발견하고 불을 밝혀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안도했었는지요.

본문의 시편기자도 어두운 길 위에서 불안함으로 헤매다가 한줄기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은 잃었던 길을 찾게 해주었고, 두려움을 떨치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시편기자는 이 빛이 발에 등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발에 등은 내 한걸음 앞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모든 길을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한 걸음 앞을 비추어주는 빛이 발에 등입니다. 이 등을 들고 시편기자가 길을 걷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두운 길 위에서 등불을 들고, 빛이 비추는 만큼을 내다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가 길을 걷는 방법은 ‘빛을 따라, 한 걸음씩’입니다. 어둠의 위력을 물리친 빛이 가리키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침내 도착할 그 곳으로 가는 여정이 되고, 그 여정은 이미 그에게 빛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인생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해 무지합니다. 장래일은 알 수 없기에 어둠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마주한 이러한 현실의 어두운 길 위에서 ‘빛을 따라, 한걸음씩’ 걸어 가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요1:14)”고 말하며, 시편기자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걷는 우리의 걸음마다 등과 빛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성경 속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의 조상들 역시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빛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갔을 때, 그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빛이신 예수를 따라 한 걸음씩 허락하신 새해를 살아간다면, 마침내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 보며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정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과 길에 빛이 되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 보자고 말씀하시며, 그 길 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셔서 빛 안에 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리하셨던 것처럼,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귀하고 가치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늘 충만하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결실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_이성실